

『한민족어문학』 제77집 편집자의 말

제77집에 실린 논문은 총 11편으로 국어학 3편, 고전문학 2편, 현대문학 6편이다. 두 차례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전문가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 게재 되지 못한 논문 중에도 참신한 발상과 내용의 논문이 여럿 있었으나 심사 결과와 게재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이번 호에 신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학문 분야별 분포가 고르지 못한 점은 논문 모집 공고의 확대를 통해 점차 균형을 찾아갈 것이다.

국어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안예리의 ‘융합형 ‘래도’의 기원에 대한 재고찰’, 강희숙의 ‘남성 호칭 접미사 ‘-샌’의 지리적 분포 및 사용 양상-섬진강 유역 방언을 중심으로-’, 김세환의 ‘의성 지역어 ‘르,애,ㅎ’ 불규칙 어간의 기저형 차이-서부와 동부를 중심으로-’로 모두 3편이 실렸다.

안예리의 ‘융합형 ‘래도’의 기원에 대한 재고찰’에서는 ‘래도’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국어에서 ‘래도’는 보조사, 연결어미, 종결어미 등 다양한 쓰임을 보인다. 기존 사전 및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분포의 ‘래도’를 모두 ‘-라(고) 하여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해 왔지만 이 논문에서는 공시적, 통시적 검토를 통해 이들 ‘래도’의 기원이 단일하지 않음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희숙의 ‘남성 호칭 접미사 ‘-샌’의 지리적 분포 및 사용 양상-섬진강 유역 방언을 중심으로-’은 그동안 전남 동부 지역의 고유한 방언형으로 인식되어 온 남성 호칭 접미사 ‘-샌’의 지리적 분포와 사용 양상에 대해 살펴본 논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샌’형 호칭이 전남의 동부 지역어에서 발생

하여 하동이나 함양과 같은 경남의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 '-새'형 호칭이 섬진강 유역 전이 지역 방언의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논의하였다.

김세환의 '의성 지역어 '르,애,ㅎ' 불규칙 어간의 기저형 차이-서부와 동부를 중심으로-'는 의성 지역어의 르-불규칙, 애-불규칙, ㅎ-불규칙의 기저형 차이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의성은 경북의 중앙에 있어서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 어간이 동부와 서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그에 대한 기저형의 차이를 이 글에서 논의하였다.

고전문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김원준의 '〈亂後紀行〉의 시적 전개를 통한 약포의 임진란 인식', 정우락의 '대구지역의 구곡문화와 그 특징'으로 모두 2편이 실렸다.

김원준의 '〈亂後紀行〉의 시적 전개를 통한 약포의 임진란 인식'은 기존 약포 정탁의 시문학 연구에 대한 미흡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임란을 배경으로 한 장편의 전쟁시가 흔치 않은 상황에서 5언 162구로 이루어진 <난후기행>은 약포 시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논문에서는 <난후기행>을 대상으로 시간적 추이에 따른 시적 구성과 그 사이에 펼쳐진 약포의 인식을 통해 약포 시의 특징적 일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우락의 '대구지역의 구곡문화와 그 특징'에서는 대구지역 구곡의 존재와 그 문화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대구지역에는 모두 7개소의 구곡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지역의 구곡문화는 주자를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정격형보다 이것을 창조적으로 변용하는 변격형이 많다는 점, 그러나 도학주의에 입각한 구심력 역시 확보하고 있어 구곡을 최근까지 조성하는 등 이 문화에 대한 현대적 계승의식도 강하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대문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손미영의 '1950년대 여성시의 모색과 문학적 전략-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 김인섭의 '박목월의 성경인용 시에 나타난 신앙적 성찰과 시적 형상화', 박안토니나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학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고찰-이블라지미르의『소망의 기슭』을 중심으로-', 송주현의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연구-인물 관계와 서사화 과정을 중심으로-', 김현주의 '문금동 소설 <인정루> 연구', 최병구의 '신체와 정동: 1930년대 프로문학의 문화정치적 역학-임화와 김남천을 중심으로-'으로 모두 6편이 실렸다.

손미영의 '1950년대 여성시의 모색과 문학적 전략-김남조와 홍윤숙의 시를 중심으로-'에서는 김남조와 홍윤숙의 초기 시를 읽음으로써 1950년대 여성시가 인간성 회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문학적 전략들을 검토하였다. 서로 다른 두 여성시인의 문학적 전략은 한국의 여성시가 1950년대부터 다양한 형식으로 여성적 글쓰기의 가능성을 타진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하였다.

김인섭의 '박목월의 성경인용 시에 나타난 신앙적 성찰과 시적 형상화'에서는 한국의 기독교 시인들이 시작의 전거로서 성경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박목월의 성경인용 시를 분석해보면 전통 서정시와는 뿌리가 다른 낯선 서정을 표현한 시편들을 접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서정시인이 문화권이 다른 경전을 인용하여 이루어낸 시적 성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안토니나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학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고찰-이블라지미르의『소망의 기슭』을 중심으로 -'은 고려인 작가들의 활동 지역을 우즈베키스탄으로 한정하고, 러시아어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이블라지미르에 대해 연구하는 데 목표를 둔 논문이다. 고려인 문학의 현황과 변모를 살펴봄으로써 고려인 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송주현의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연구-인물 관계와 서사화 과정을 중심으로-'는 김유정 소설의 정체성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살핀 글이다. 필자는 김유정의 소설이 당대 지식인 작가들과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내면에 '사랑'의 문제가 놓여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것을 레비나스가 말하는 책임윤리의 문제로 확장하여 논의하였다.

김현주의 '문금동 소설 <인정루> 연구'는 고려인 작가 문금동의 작품 <인정루>에 대한 논문이다. <인정루>가 과거의 삶을 소설로 재현하는 방식을 통해 이주와 유랑 속에 흩어진 전통들을 수집, 보존한 것이며, 작가의 자기 정체성 찾기를 위한 역사적인 삶의 기록과 증언임을 논의하였다.

최병구의 '신체와 정동: 1930년대 프로문학의 문화정치적 역학-임화와 김남천을 중심으로-'은 1930년대 초반의 프로문학을 신체와 정동의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논문이다. 1930년대 일본의 사회주의자 탄압에 대한 임화와 김남천의 대응 방식에서 드러나는 기술, 법, 미디어의 문제를 환기시키고, 궁극적으로 정동하는 신체가 가지는 삶-정치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간 과학적 사회주의의 강화라는 맥락에서 이론적 우위만이 강조되었던 1930년대 초반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문화정치적 맥락에 대해 논의하였다.